

## 2012년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동향(연간)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◇ 12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.8억불로 전년 동월(7.5억불)대비 10.5% 감소한 실적을 기록
  - 통관일수 감소('11.12월 대비 △3일) 등으로 월 전체 수출은 감소
  - 신선농식품 △19.0%, 수산물 △18.7%, 가공식품 △3.2% 감소
  - 국가별로는 중국, 일본, 대만 감소, 미국과 러시아, EU 수출이 크게 증가
- ◇ '12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80.1억불로 전년 대비 4.1% 증가
  - 2년 연속 신선농산물 10억불, 수산물 20억불 수출
    - 1억불 이상 품목은 '11년 12개에서 '12년 13개\*로 증가
    - 껌·참치 6억불, 김·라면 2억불 처음으로 돌파
    - \* 껌, 참치, 설탕, 커피제품, 라면, 인삼, 소주, 오징어, 김, 음료, 제3맥주<sup>1)</sup>, 김치 ⇒ (추가)비스킷
  - 미국, EU, ASEAN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, 중국, 대만, 홍콩 등 중화권 수출은 부진
    - 1억불 이상 수출국은 11개국('11년)에서 14개국('12년)\*으로 확대
    - \* 필리핀, 싱가포르, 호주 등 3개국 신규 추가

1) 맥아 50% 미만에 소량의 주정을 섞은 초저도 맥주

##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동향

- 12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.8억불로 전년 동월(7.5억불)대비 10.5%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였다.
    - 10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월간 수출규모는 통관일수 감소\* 등으로 인해 3개월만에 하향세를 보였음
- \* '12.12월 통관일수는 '11.12월 대비 △3일(24.5일 → 21.5일)
- 신선농식품(△18.9%)과 수산물(△18.8%), 가공식품(△3.2%) 모든 부류에서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였다.
    - [신선농식품] 인삼(15.8, 17%), 감귤(1.8, 111%), 토마토(1.4, 42%)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김치(8.9, △10%), 사과(0.6, △66%), 팥이 버섯(2.3, △68%)은 수출이 감소하였다.
    - [가공식품] 조제분유(9.2, 165%), 제3맥주(8.9, 27%), 음료(14.7, 17%)는 수출이 증가했으나 궤련(61.5, △26%), 막걸리(2.0, △47%)는 감소하였다.
    - [수산물] 넙치(7.4, 58%), 미역(1.9, 16%), 해삼(1.4, 256%)은 수출이 증가했으나, 참치(42.6, △19%), 삼치(6.2, △43%)는 감소하였다.
  - EU, 미국, 러시아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화권은 부진하였다.
    - 對EU 수출은 감귤, 김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20% 증가하였고 미국, 러시아가 각각 13%, 12% 증가하였다.
    - 반면, 중국의 경우 설탕, 오징어 등 대형품목 수출 감소로 對중국 수출이 20% 감소하였고
      - 홍콩·대만 또한 △22%, △23%의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.

## 2012년 농식품 수출 실적 및 평가

- '12년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4.1% 증가한 80.1억불로 잠정 집계되었다.
- 신선농식품은 '11년 대비 6.4% 증가한 10.8억불, 가공식품은 4.5% 증가한 45.7억불, 수산물식품은 2.4% 증가한 23.6억불로 나타났다.

<2012년 농림수산물 부류별 수출실적>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'11년		'12년(잠정)		증감률(%)	
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
합 계	3,479.4	7,691.3	3,914.9	8,007.6	12.5	4.1
신선농식품	331.2	1,015.3	355.4	1,079.6	7.3	6.4
가공식품	2,461.5	4,368.3	2,850.9	4,566.0	15.8	4.5
수산물식품	686.7	2,307.8	708.6	2,362.0	3.2	2.4

<연도별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>

(단위: 억불)



- '12년도 수출은 '10년 58.8억불, '11년도 76.9억불에 이어 계속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었으나,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. '12년 농식품 수출이 둔화된 이유로는
- 첫째,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,

<주요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(% , 전년동기 대비)>

	'10년	'11년	'12년 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중국	18.4	17.1	-	14.7	15.2	14.1	13.8	13.7	13.1	13.2	14.2	14.5	14.9
미국	5.5	8.0	0.6	1.0	0.4	△0.5	△0.1	△0.7	0.7	1.0	1.2	△0.3	0.3
일본	2.5	△1.2	1.8	3.4	10.3	5.7	3.6	0.2	△0.7	1.7	0.4	△1.2	1.3
홍콩	18.6	24.9	14.9	15.6	17.1	11.4	8.7	11.0	3.9	4.6	9.4	4.0	

(출처 : 한국은행)

- 둘째, '11.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'12년부터 일본의 수출 여력이 회복되고 있고, 특히 중화권에서의 일본산 대체효과가 감소하면서 동 시장으로의 한국산 수출이 저조하였다.

<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 증감율(% , 전년동월 대비)>

'12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일본→중국	64	△24.4	△22.4	55.3	61.8	67.7	48.5	35.0	54.6	22.4	-	-
한국→중국	△8.4	33.8	9.5	△6.6	△6.0	△8.0	△12.1	△25.9	△22.3	△8.0	△6.6	△19.7

- 그러나, '12년도 농식품 수출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.

- 국가 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1.3% 감소('12년 5,482억불)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4.1%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

- 국가전체 수출액은 최근 5년간 1.5배 증가한 반면 농식품 수출액은 2.1배 증가하였고, 국가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수출액 비중 또한 '07년 1.0%에서 '12년 1.5%로 증가

<연도별 국가전체 및 농식품 수출>

(단위 : 억불, %)

년도	'07	'08	'09	'10	'11	'12	'07~'12
국가전체	3,715	4,220	3,635	4,664	5,552	5,482	1.47배
농식품	37.6	45.0	48.1	58.8	76.9	80.1	2.13배
(비중)	1.01	1.06	1.32	1.26	1.38	1.46	

○ 수출액 1억불 이상 품목과 1억불 이상 수출국이 증가하면서 품목 다양화 및 시장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-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은 '11년 12개에서 13품목으로 증가

\* 껌, 참치, 설탕, 커피제품, 라면, 인삼, 소주, 오징어, 김, 음료, 제3맥주, 김치 ⇒ (추가)비스킷

<1억불 이상 수출품목>

(단위 : 백만불, %)

품목	2011년		2012년		증감률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1 껌	49.3	549.8	49.0	606.4	△0.7	10.3
2 참치	144.3	393.7	185.6	603.4	28.7	53.3
3 커피조제품	74.2	302.2	77.4	297.2	4.3	△1.7
4 자당	360.1	291.2	359.6	262.9	△0.1	△9.7
5 김	12.0	161.5	15.1	231.0	26.5	43.1
6 음료	242.0	184.1	237.8	225.9	△1.8	22.7
7 라면	44.8	186.7	46.5	206.2	3.7	10.4
8 인삼	3.7	189.3	4.4	151.0	18.5	△20.2
9 제3맥주	178.0	137.9	187.3	144.3	5.2	4.7
10 소주	69.4	114.3	77.7	126.8	12.0	10.9
11 오징어	65.3	180.9	56.7	119.6	△13.1	△33.9
12 비스킷	18.9	97.9	19.4	108.9	2.9	11.3
13 김치	27.4	104.6	27.7	106.6	0.9	1.9

- 2년 연속 신선농산물 10억불, 수산물 20억불 수출을 달성, 껌·참치는 6억불, 김·라면은 2억불을 최초로 달성

- 1억불 이상 수출국도 '11년 11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

\* 일본, 중국, 미국, 베트남, 태국, 홍콩, 러시아, 대만, UAE, 인니, 뉴질랜드 ⇒ (추가)필리핀, 싱가포르, 호주

- 수출국 비중도 일본, 중국 등 기존 주력시장으로의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있고, 미국, 아세안, EU 등 신흥시장 비중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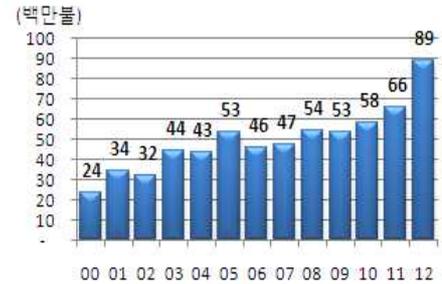
<주요 국가별 수출비중>

(단위 : %)

	일본	중국	미국	러시아	홍콩	대만	아세안	EU
2011	30.9	17.9	7.8	3.2	4.0	3.4	13.4	4.7
2012	29.8	16.0	8.3	3.2	3.7	3.2	14.9	5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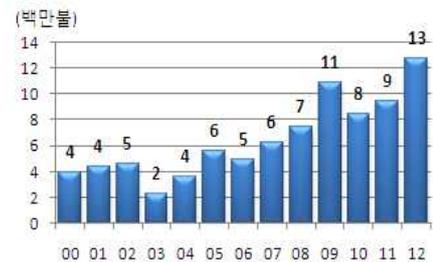
## 【신선농식품】

- 파프리카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최대 파프리카 시장인 일본 시장규모 확대로 수출이 전년대비 34.8% 증가한 88.8백만불에 달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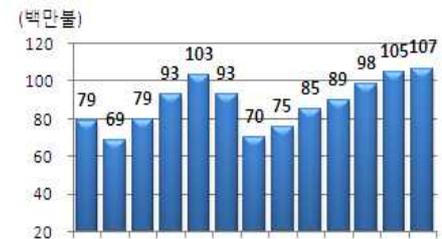
\* 일본 파프리카 수입시장규모 : ('11.11) 24,370톤 → ('12.11) 30,409톤 (24.8% ↑)

- 단감은 상반기 저장단감 수출증가, 금년도 생산호조 및 홍콩, 필리핀, 태국 등 신규시장 수출확대로 전년대비 36.5% 증가한 12.8백만불을 기록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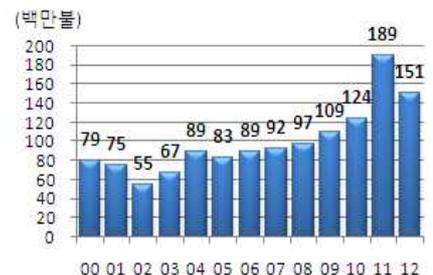
\* 국가별 : 말련(5.2, 31%), 캐나다(1.9, 45%), 홍콩(1.4, 48%), 필리핀(1.2, 133%), 태국(0.5, 54%)

- 김치는 미국, 홍콩, 대만 시장 내 신규입점 및 한인마켓 매장 수가 확대되었으나, - 수출비중이 79%에 육박하는 일본 소비 감소로 전년대비 1.9% 증가에 머물렀다.



\* 국가별 : 일본(84.6, △2.6%), 미국(3.9, 38.6%), 홍콩(3.3, 36.2%), 대만(2.7, 1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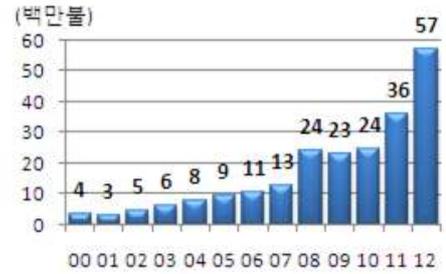
- 인삼은 한류마케팅과 현지법인 증설 등의 노력으로 대 일본 수출은 증가한 반면, - 중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'11년 인삼 공사의 증화권 재고가 미소진됨에 따라 전년대비 △20% 감소한 151.1백만불 수출에 그쳤다.



\* 국가별 : 일본(36.7백만불, 10.9%), 중국(32.4, △29%), 홍콩(26.6, △32%), 대만(22.3, △4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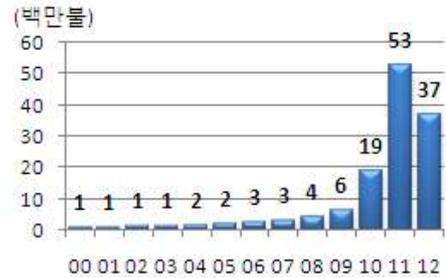
## 【가공식품】

- 조제분유는 중화권내 한국산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중동지역 신규시장 개척노력으로 57.1백만불 수출하며 전년대비 57.6% 성장세를 이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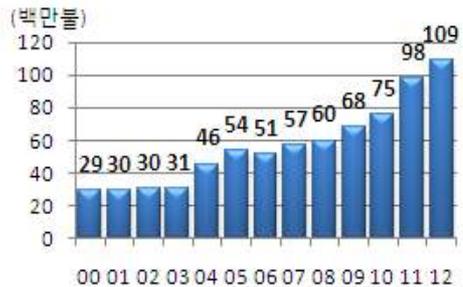
- \* 중화권 한국산 조제분유 수요 증가추세 : ('11) 25.3백만불 → 40.5(59.8% ↑)
- \* 국가별 수출현황 : 중국(39.1, 64.0%), 베트남(9.8, 30.9%), 사우디아라비아(5.7, 205.1%)

- 막걸리는 여성층을 중심으로 무알콜 음료가 인기를 끄는 등 일본 주류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며 수출이 전년대비 △30.0% 하락한 36.9백만불에 그쳤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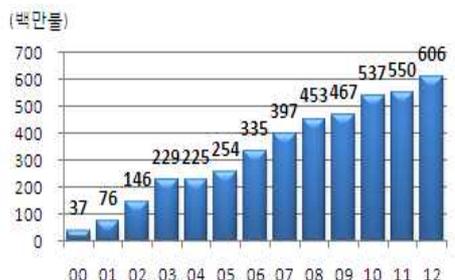
- \* 막걸리 국가별 : 일본(32.0백만불, △33.9%), 미국(1.9, 0.2%), 중국(1.4, 11.4%)

- 비스킷은 프리미엄 과자를 중심으로 일본,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 결과 전년대비 11.3% 증가한 109백만불로 최초 1억불을 돌파하였다.



- \* 비스킷 국가별 : 중국(23.9백만불, 58.1%), 일본(20.4, 7.3%), 홍콩(8.6, 44.4%)

- 쿼런은 중동시장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對UAE와 베트남 수출이 각각 25.6%, 65.2% 증가하며 전체실적은 전년대비 10.3%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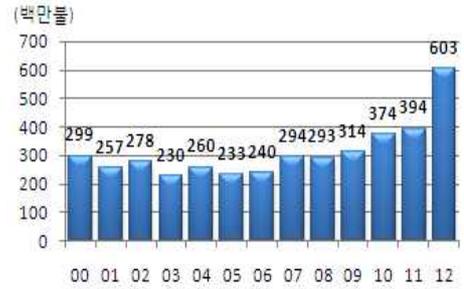


- \* 국가별 : UAE(199.4백만불, 25.6%), 아프가니스탄(88.7, △1.1%), 베트남(72.4, 65.2%)

## 【수산식품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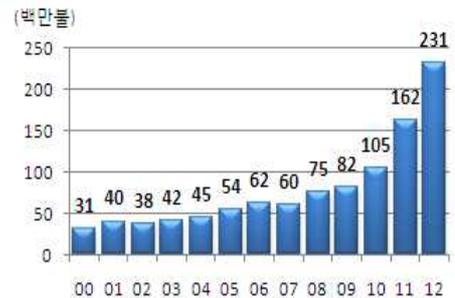
- 참치는 어획량 증가 및 단가상승,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호조, 인도양 조업선 신규투입 허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에 힘입어 전년대비 53.3% 증가하며 사상 최초 6억불 수출을 달성하였다.

- \* 참치 연도별 : ('09)314.4백만불 → ('10)374.4 → ('11)393.7 → ('12)603.4
- \* 참치 국가별 : 일본(238.3, 34.3%), 중국(23.4, 42.5%), 스페인(22.3, 13.4%)
- \* 참치 ASEAN 지역 수요: 태국(201.9, 49.5%), 필리핀(9.9, 572.3%), 말레이시아(1.0, 81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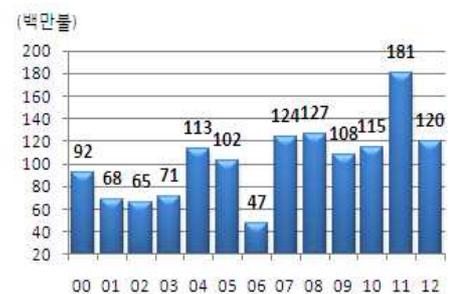
- 김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가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, 가공용·식재료용 마른김에 대한 한국산 수요증대로 인해 처음으로 2억불 수출을 달성하였다.

- \* 김 연도별 : ('09) 0.8억불 → ('10) 1.1 → ('11) → 1.6 → ('12) 2.3 (43.1% ↑)
- \* 김 국가별 수출 : 일본(71.6백만불, 23.3%), 미국(51.3, 32.6%), 태국(33.6, 118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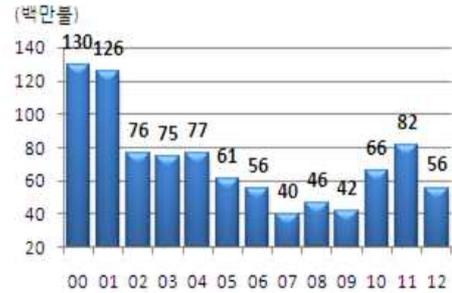


- 오징어는 원양 및 연근해안 생산이 증가하였으나,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국, 뉴질랜드 등 주요수출국으로 단가가 하락하여 전년대비 △34% 감소한 119.6백만불을 수출하였다.

- \* 오징어 생산량 : 연근해(109,193톤, 전년대비 10.4% 증가), 원양(72,969톤, 14.4% 증가)
- \* 수출단가 : ('11.12) 2.8\$/kg → ('12.12) 2.1\$/kg
- \* 국가별 : 중국(39.5백만불, △60.5%), 미국(20.1, 27.1%), 뉴질랜드(18.7, △50.9%)



- **굴은 한국산 패류의 대미수출 중단**으로 전년대비  $\Delta 31.6\%$  감소했으나 **12월부터 굴 통조림품에 대한 중단 조치**가 해지(단, 1·2호 해역 제외)됨으로써 '13년도에는 통조림 제품 등의 수출 회복세가 전망된다.



\* 국가별 : 일본(33.6백만불,  $\Delta 11.6\%$ ), 미국(5.6,  $\Delta 73.7\%$ ), 홍콩(5.4,  $\Delta 13.3\%$ )

- 국가별로는, 미국(10.7%), EU(15.6%), ASEAN(15.6%)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화권 수출은 부진하였다.

(단위 : 백만불, %)

국가	일본	중국	미국	러시아	홍콩	대만	ASEAN	EU
수출액	2,389.6	1,279.0	664.1	259.2	297.2	253.8	1,193.1	419.5
증가율 (비중)	0.7	$\Delta 7.3$	10.7	6.8	$\Delta 2.7$	$\Delta 2.8$	15.6	15.6
	29.8	16.0	8.3	3.2	3.7	3.2	14.9	5.2

- **對 일본 수출**은 참치, 파프리카, 김 등 기존 주력품목들이 수출호조세를 지속했으나, 음료, 김치 등 주요 품목들이 부진하며 전년대비 0.7% 증가한 23.9억불을 기록하였다.

\* 일본 : 참치(238.3백만불, 34.3%), 제3맥주(144.0, 4.8%), 소주(102.2, 10.3%)

- **중국**은 설탕, 커피조제품 등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품목들이 보합세에 그쳤고, 주력품목인 인삼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 $\Delta 7.3\%$  감소한 12.8억불을 수출하였다.

\* 중국 : 설탕(146.8백만불, 2.8%), 커피조제품(54.2, 6.9%), 인삼(32.4,  $\Delta 29\%$ )

- **對美 수출**은 한미FTA 체결('12.3.15)에 따른 관세철폐 품목과 켈런, 배, 오징어 등 기존 주요수출품목 위주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0.7% 성장한 6.6억불을 기록하였다.

\* 미국 : 켈런(39.0백만불, 32.6%), 배(26.3, 10.4%), 오징어(20.1, 27.1%)

\* 한미FTA 관세 즉시철폐 품목 : 음료(50.4, 49.1%), 김(51.3, 32.6%), 김치(3.9, 39.0%), 라면(22.1, 7.8%), 홍삼조제품(3.4, 25.2%)

○ EU는 참치, 오징어, 김 등 수산식품이 수출증가세를 이끌었으며 국가별로는 네덜란드, 독일, 영국으로 수출이 늘었다.

\* EU : 참치(54.7, 88.5%), 오징어(4.8, 48.5%), 김(4.5, 49.8%)

\* 국가별 : 네덜란드(99.5, 4.9%), 독일(52.5, 57.9%), 영국(47.9, 28.7%)

○ 아세안 지역으로는 참치, 쥘런, 김, 라면, 음료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지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었다.

\* 아세안 : 참치(228.7, 50.5%), 쥘런(106.4, 57.4%), 김(40.7, 98.7%), 라면(27.2, 42.8%), 음료(25.4, 87.8%)

[2012년 대 ASEAN 국가별 수출현황]

(단위 : 백만불, %)

국가	총계	베트남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싱가포르	말레이시아	캄보디아	미얀마
수출액	1,193.1	338.5	314.4	151.9	123.6	108.7	79.2	49.5	26.2
증가율	15.6	22.9	6.0	25.0	27.1	11.4	△17.3	74.6	38.5

□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지속과 환율 하락 등은 2013년도 농식품 수출전망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.

○ 특히, 수출액의 30% 수준에 달하는 일본시장의 비중을 감안하면 엔화 환율의 움직임과 향후 한일관계에 따라 농식품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## 농림수산물 수출실적(2012년 확정)

### □ 부류별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'10년	'11년	증감률	당월실적(12월)			누계실적(1~12월)		
				'12년	'11년	증감률	'12년	'11년	증감률
<b>전 체</b>	<b>5,880.0</b>	<b>7,691.3</b>	<b>30.8</b>	<b>675.3</b>	<b>754.4</b>	<b>△10.5</b>	<b>8,007.6</b>	<b>7,691.3</b>	<b>4.1</b>
<b>○ 신 선</b>	<b>873.9</b>	<b>1,015.3</b>	<b>16.2</b>	<b>95.9</b>	<b>118.8</b>	<b>△19.0</b>	<b>1,079.6</b>	<b>1,015.3</b>	<b>6.4</b>
- 채소류	178.4	178.2	△0.1	19.9	25.3	△21.2	224.7	178.2	26.1
- 김 치	98.4	104.6	6.3	8.9	9.9	△9.5	106.6	104.6	1.9
- 인삼류	124.2	189.3	52.4	15.8	13.6	16.7	151.0	189.3	△20.2
- 화훼류	103.1	90.6	△12.1	12.0	16.2	△25.9	83.8	90.6	△7.5
- 과일류	195.4	199.5	2.1	23.3	30.8	△24.2	222.1	199.5	11.3
- 버섯류	38.9	38.2	△1.7	3.8	8.9	△57.0	33.5	38.2	△12.4
- 돼지고기	0.8	1.6	100.1	0.4	0.2	162.4	2.9	1.6	86.7
- 가금육류	31.8	40.9	28.4	4.7	5.8	△17.8	41.2	40.9	0.9
- 산림부산물	102.9	172.4	67.5	7.1	8.1	△11.8	213.8	172.4	24.0
<b>○ 가 공</b>	<b>3,207.9</b>	<b>4,368.2</b>	<b>36.2</b>	<b>389.8</b>	<b>402.4</b>	<b>△3.2</b>	<b>4,566.0</b>	<b>4,368.2</b>	<b>4.5</b>
* 면 류	240.1	290.3	20.9	23.2	25.9	△10.4	315.6	290.3	8.7
* 소스류	129.7	155.4	19.8	13.8	13.2	5.1	172.0	155.4	10.7
* 주 류	313.3	403.2	28.7	30.2	28.9	4.7	417.4	403.2	3.5
* 과자류	290.5	375.1	29.1	35.9	34.1	5.1	403.2	375.1	7.5
* 연초류	542.1	572.1	5.5	65.8	85.0	△22.5	632.8	572.1	10.6
* 유제품	58.0	66.8	15.1	13.6	7.2	87.6	101.5	66.8	52.1
- 목 재 류	111.2	94.1	△15.4	20.4	5.9	248.5	251.0	94.1	166.9
<b>○ 수 산</b>	<b>1,798.2</b>	<b>2,307.8</b>	<b>28.3</b>	<b>189.6</b>	<b>233.2</b>	<b>△18.7</b>	<b>2,362.0</b>	<b>2,307.8</b>	<b>2.4</b>
- 어 류	1,096.9	1,312.3	19.6	115.5	149.0	△22.5	1,382.4	1,312.3	5.4
- 연체동물	328.1	447.5	36.4	27.9	35.5	△21.3	342.3	447.5	△23.5
- 해조류	171.9	257.9	50.0	22.8	21.6	5.7	316.5	257.9	22.7
- 갑각류	77.2	122.8	59.1	10.1	12.5	△19.0	124.8	122.8	1.6
- 기 타	124.1	167.3	34.9	13.3	14.6	△9.6	196.0	167.3	17.2

### □ 국가별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'10년	'11년	증감률	당월실적(12월)			누계실적(1~12월)		
				'12년	'11년	증감률	'12년	'11년	증감률
<b>전 체</b>	<b>5,880.0</b>	<b>7,691.3</b>	<b>30.8</b>	<b>675.3</b>	<b>754.4</b>	<b>△10.5</b>	<b>8,007.6</b>	<b>7,691.3</b>	<b>4.1</b>
일본	1,882.6	2,374.2	26.1	192.0	222.4	△13.6	2,389.5	2,374.2	0.6
중국	787.4	1,380.0	75.3	113.2	141.0	△19.7	1,279.0	1,380.0	△7.3
미국	518.8	599.8	15.6	57.8	51.3	12.7	664.1	599.8	10.7
러시아	235.7	242.7	3.0	20.2	18.0	12.2	259.2	242.7	6.8
홍콩	243.7	305.5	25.3	26.9	34.2	△21.5	297.3	305.5	△2.7
대만	211.3	261.0	23.5	25.4	32.8	△22.6	253.8	261.0	△2.7
A S E A N	719.8	1,031.9	43.4	100.9	97.4	3.6	1,193.1	1,031.9	15.6
E U	332.7	362.9	9.1	37.5	31.3	19.9	419.5	362.9	15.6
기타	948.0	1,133.3	19.5	101.4	126.0	△19.6	1,252.1	1,133.3	10.5

□ 주요 품목별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분	'10년	'11년	증감률	당월 실적(12월)			누계 실적(1~12월)			
				'12년	'11년	증감률	'12년	'11년	증감률	
<b>전체</b>	<b>5,880.0</b>	<b>7,691.3</b>	<b>30.8</b>	<b>675.3</b>	<b>754.4</b>	<b>△10.5</b>	<b>8,007.6</b>	<b>7,691.3</b>	<b>4.1</b>	
<b>○ 신선</b>	<b>873.9</b>	<b>1,015.3</b>	<b>16.2</b>	<b>95.9</b>	<b>118.8</b>	<b>△19.0</b>	<b>1,079.6</b>	<b>1,015.3</b>	<b>6.4</b>	
김치	98.4	104.6	6.3	8.9	9.9	△9.5	106.6	104.6	1.9	
인삼	124.2	189.3	52.4	15.8	13.6	16.7	151.0	189.3	△20.2	
채소류	파프리카	58.3	65.9	13.0	6.8	6.5	3.3	88.8	65.9	34.8
	채소종자	24.1	29.0	20.2	3.0	3.3	△7.1	40.5	29.0	39.5
	딸기	26.1	20.6	△21.1	4.8	5.4	△10.7	24.3	20.6	18.2
	멜론	4.7	4.5	△3.8	0.0	0.4	△88.4	4.9	4.5	8.4
	토마토	6.6	9.7	45.3	1.4	1.0	41.9	12.9	9.7	33.7
과실·견과류	배	54.1	47.3	△12.7	7.8	12.4	△37.1	50.0	47.3	5.7
	유자차	32.6	40.4	24.0	4.9	5.9	△17.8	40.8	40.4	0.9
	사과	17.9	8.9	△50.5	0.6	1.7	△65.9	5.9	8.9	△33.4
	단감	8.4	9.4	12.1	1.4	1.7	△21.7	12.8	9.4	36.5
	감귤	1.6	2.7	70.7	1.8	0.8	111.1	4.8	2.7	77.3
화훼류	밤	30.2	29.0	△4.0	0.8	1.0	△23.8	35.9	29.0	24.0
	장미	34.2	25.7	△25.0	1.4	2.3	△40.9	27.1	25.7	5.7
	백합	27.8	33.1	18.8	3.9	5.5	△28.7	30.1	33.1	△9.1
버섯류	국화	13.8	11.2	△18.9	1.1	1.8	△40.0	9.7	11.2	△13.6
	팽이	26.3	22.6	△14.1	2.3	7.0	△67.6	16.9	22.6	△25.4
가금육	새송이	8.6	11.3	32.0	1.2	1.3	△7.9	12.5	11.3	10.4
	닭가슴살	31.4	40.6	29.5	4.7	5.8	△17.9	41.0	40.6	0.9
<b>○ 가공</b>	<b>3,207.9</b>	<b>4,368.2</b>	<b>36.2</b>	<b>389.8</b>	<b>402.4</b>	<b>△3.2</b>	<b>4,566.0</b>	<b>4,368.2</b>	<b>4.5</b>	
가공식품	퀵린	536.5	549.8	2.5	61.5	83.2	△26.2	606.4	549.8	10.3
	제3맥주	97.1	137.9	42.0	8.9	7.0	26.7	144.3	137.9	4.7
	커피제품	205.9	302.2	46.8	26.2	31.7	△17.5	297.2	302.2	△1.7
	라면	157.2	186.7	18.8	15.1	17.1	△11.6	206.2	186.7	10.4
	설탕	242.1	291.2	20.2	18.9	29.3	△35.7	262.9	291.2	△9.7
	소주	123.1	114.3	△7.1	9.9	11.5	△13.9	126.8	114.3	10.9
	음료	102.6	184.1	79.5	14.7	12.5	17.1	225.9	184.1	22.7
	비스킷	75.4	97.9	29.9	9.6	8.9	7.4	108.9	97.9	11.3
	맥주	46.8	65.4	39.6	4.2	3.5	19.3	67.8	65.4	3.7
	마요네즈	38.1	37.2	△2.4	2.0	2.5	△18.5	37.8	37.2	1.5
	고추장	16.8	21.8	29.8	2.0	1.9	7.5	23.8	21.8	9.0
	막걸리	19.1	52.7	176.2	2.0	3.8	△47.0	36.9	52.7	△30.0
조제분유	24.4	36.2	48.6	9.2	3.5	164.7	57.1	36.2	57.6	
<b>○ 수산</b>	<b>1,798.2</b>	<b>2,307.8</b>	<b>28.3</b>	<b>189.6</b>	<b>233.2</b>	<b>△18.7</b>	<b>2,362.0</b>	<b>2,307.8</b>	<b>2.4</b>	
어류	참치	374.4	393.7	5.2	42.6	52.5	△18.8	603.4	393.7	53.3
	고등어	27.4	48.8	78.4	6.3	7.5	△17.0	71.6	48.8	46.7
	삼치	54.6	67.6	23.8	6.2	10.8	△42.5	53.7	67.6	△20.6
	넙치	78.8	79.4	12.3	7.4	4.7	57.9	69.0	79.4	△13.0
연체동물	오징어	114.8	180.9	57.7	9.2	10.1	△9.3	119.6	180.9	△33.9
	굴	66.1	81.7	23.7	3.8	4.2	△8.3	55.8	81.7	△31.6
	전복	36.8	52.4	42.2	7.4	7.9	△6.7	58.2	52.4	11.3
해조류	김	105.2	161.5	53.5	16.4	15.7	4.4	231.0	161.5	43.1
	미역	19.0	40.8	114.1	1.9	1.6	16.1	36.5	40.8	△10.5
수생동물	해삼	12.4	13.1	5.5	1.4	0.4	256.1	13.4	13.1	2.3

□ 주요 품목별(누계금액순)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'10년	'11년	증감률	당월실적(12월)			누계실적(1~12월)		
				'12년	'11년	증감률	'12년	'11년	증감률
전 체	5,880.0	7,691.3	30.8	675.3	754.4	△10.5	8,007.6	7,691.3	4.1
○ 가 공	3,207.9	4,368.2	36.2	389.8	402.4	△3.2	4,566.0	4,368.2	4.5
○ 수 산	1,798.2	2,307.8	28.3	189.6	233.2	△18.7	2,362.0	2,307.8	2.4
○ 신 선	873.9	1,015.3	16.2	95.9	118.8	△19.0	1,079.6	1,015.3	6.4
퀵런	536.5	549.8	2.5	61.5	83.2	△26.2	606.4	549.8	10.3
참치	374.4	393.7	5.2	42.6	52.5	△18.8	603.4	393.7	53.3
커피조제품	205.9	302.2	46.8	26.2	31.7	△17.5	297.2	302.2	△1.7
설탕	242.1	291.2	20.3	18.9	29.3	△35.7	262.9	291.2	△9.7
김	105.2	161.5	53.5	16.4	15.7	4.4	231.0	161.5	43.1
음료	102.6	184.1	79.5	14.7	12.5	17.1	225.9	184.1	22.7
라면	157.2	186.7	18.8	15.1	17.1	△11.6	206.2	186.7	10.4
인삼	124.2	189.3	52.4	15.8	13.6	16.7	151.0	189.3	△20.2
제3맥주	97.1	137.9	42.0	8.9	7.0	26.7	144.3	137.9	4.7
소주	123.1	114.3	△7.1	9.9	11.5	△13.9	126.8	114.3	10.9
오징어	114.8	180.9	57.7	9.2	10.1	△9.3	119.6	180.9	△33.9
비스킷	75.4	97.9	29.9	9.6	8.9	7.4	108.9	97.9	11.3
김치	98.4	104.6	6.3	8.9	9.9	△9.5	106.6	104.6	1.9
파프리카	58.3	65.9	13.0	6.8	6.5	3.3	88.8	65.9	34.8
고등어	27.4	48.8	78.4	6.3	7.5	△17.0	71.6	48.8	46.7
넙치	78.8	79.4	0.7	7.4	4.7	57.9	69.0	79.4	△13.0
맥주	46.8	65.4	39.6	4.2	3.5	19.3	67.8	65.4	3.7
전복	36.8	52.4	42.2	7.4	7.9	△6.7	58.2	52.4	11.3
조제분유	24.4	36.2	48.6	9.2	3.5	164.7	57.1	36.2	57.6
굴	66.1	81.7	23.7	3.8	4.2	△8.3	55.8	81.7	△31.6
삼치	54.6	67.6	23.8	6.2	10.8	△42.5	53.7	67.6	△20.6
배	54.1	47.3	△12.7	7.8	12.4	△37.1	50.0	47.3	5.7
닭고기·오리고기	31.4	40.6	29.5	4.7	5.8	△17.9	41.0	40.6	0.9
유자차	32.6	40.4	24.0	4.9	5.9	△17.8	40.8	40.4	0.9
채소종자	24.1	29.0	20.3	3.0	3.3	△7.1	40.5	29.0	39.5
마요네스	38.1	37.2	△2.4	2.0	2.5	△18.5	37.8	37.2	1.5
막걸리	19.1	52.7	176.2	2.0	3.8	△47.0	36.9	52.7	△30.0
미역	19.0	40.8	114.1	1.9	1.6	16.1	36.5	40.8	△10.5
밤	30.2	29.0	△4.0	0.8	1.0	△23.8	35.9	29.0	24.0
백합	27.8	33.1	18.8	3.9	5.5	△28.7	30.1	33.1	△9.1
장미	34.2	25.7	△25.0	1.4	2.3	△40.9	27.1	25.7	5.7
딸기	26.1	20.6	△21.1	4.8	5.4	△10.7	24.3	20.6	18.2
고추장	16.8	21.8	29.8	2.0	1.9	7.5	23.8	21.8	9.0
팽이버섯	26.3	22.6	△14.1	2.3	7.0	△67.6	16.9	22.6	△25.4
해삼	12.4	13.1	5.5	1.4	0.4	256.1	13.4	13.1	2.3
토마토	6.6	9.7	45.3	1.4	1.0	41.9	12.9	9.7	33.7
단감	8.4	9.4	12.1	1.4	1.7	△21.7	12.8	9.4	36.5
새송이	8.6	11.3	32.0	1.2	1.3	△7.9	12.5	11.3	10.4
국화	13.8	11.2	△18.9	1.1	1.8	△40.0	9.7	11.2	△13.6
사과	17.9	8.9	△50.6	0.6	1.7	△65.9	5.9	8.9	△33.4
멜론	4.7	4.5	△3.8	0.0	0.4	△88.4	4.9	4.5	8.4
감귤	1.6	2.7	70.7	1.8	0.8	111.1	4.8	2.7	77.3